

“ 숨은 제자들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는 이름은 신자인데 숨어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밤에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 자기 믿음을 표출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믿되 숨어서 믿는 자들이었다. 니고데모는 예수 공생애 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고백했으나, 공개적으로 예수를 찾아 나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 왔고, 우리 주님이 정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침묵만 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 했으나 그는 아무 항의를 하지 않고, 그날 이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때를 놓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다 도망친 상태에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과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장례할 터이니 시체를 달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담대함처럼 보이나 실상은 12제자의 실패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을 뿐이다. 죄 많은 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봉사와 헌금을 바치듯이 이들은 실행 일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구경만 하다가 죽은 시체를 장례하겠다는 예수님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유대인들에겐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했고, 로마인에겐 시체로 인해 민란이 일어나는 염려가 있을 때, 이들이 나타났으니 쉽게 허락을 받을 수 있고, 예수께도 덜 미안한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숨은 제자들처럼 그들은 주님 위해 일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나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는 허망함과 조소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년 전 UN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투표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기권을 한 적이 있다. 불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다가올 심판 날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습관적 · 직업적 신앙인이었다. 타종교의 도덕성과 야합한 혼합주의자요 세속화되어 불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한 자요 교회 문화와 신앙 생활에서 단절된 자 즉 이름만 가진 신자(Nominalist)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끌어내었다. 기회를 놓친 겁이 많은 아리마대 요셉도 막상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더 이상 침묵만 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고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의 머리되심이 거부되며, 그의 몸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도 입을 열어 그를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요셉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장례라도 해야겠다고 나섰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인내가 그를 끌어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 대신 털 깎는 자 앞의 양과 같이 잠잠히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땅도 하늘도 죽음도 성전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을 버렸다. 결국 요셉과 니고데모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었다. 요셉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가 시체를 달라 할 이유가 없다. 원수들이 멀리 가 위험은 사라졌다. 그리스도 편에 설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다. 부자요 권세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의 시체를 장례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깝다. 지금은 당신이 일어나야 할 때다. 나는 아리마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에 빌라도도 없지만 내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라. 당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위해 당신은 죽을 준비되었는가? 영광 받으신 주님께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아와야 한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주님 앞에서 도적질한 죄를 회개할 줄 알면서,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숨은 제자 되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 절기에 나아오라 일어나라 대담하게 주님께 오라 왕의 왕, 주의 주 그분께만 살든지 죽든지 영원히 영광을 돌리자!

—한국장로신문 [제1499호] 2016년 4월 2일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아굽주환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사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라,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말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진서·현태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후쿠야 마, 당, 탕, 셴,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 이, 난, 쟁, 쟀다, 시우, 키움, 랑, 호라, 라베, 벨, 비에, 마을, 차, 짜우, 마카엘, 미얀마, 필리핀,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브, 이경영, 알로롱, 비서, 누뵈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권(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 권선교</p>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p> <p>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노철 Park, No Cheol</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p>
--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요 21:15~23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21장에서 베드로 사도를 거론합니다. 21장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1세기 후반 교회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들어와 있음에도 방치하였고 또 어떤 교회는 도무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내 양을 먹이라’ 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 주님의 양떼를 돌볼 자의 기증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개인적인 고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정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유독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 21:15)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이것들’ 이라는 의미로 세상적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뜻입니다.

2. 제자들의 다름

주님과 12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갈릴리 지역을 다녔습니다. 핏박도 사역의 열매를 나누는 기쁨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시점부터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지, 누가 가장 큰지로 인한 다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제자들의 문제는 다름 아닌 자기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베드로까지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3.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냐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아귀는 보물을 빼앗길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냐” (마 6:21),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눅 12:34).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란 마음의 보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물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회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보물을 바꾸어 주심이 회심으로 증거 됩니다. 주님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함이 회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사랑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고 싶지 않은 보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돌보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마음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고 슬퍼하며 마음의 보물이 바뀌고서야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맺는 말

주님께서는 넘어졌다가 일어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온세계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문제를 보게 하심으로 다른 이들도 내면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의 실체를 보고 그 문제를 통해 다른 형제들의 문제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별력이 분명해야만 주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무리를 돌볼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 더 큰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당해야할 희생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많은 교회에 교회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일 회개치 않으면 내게 너에게 전해준 축대를 옮기리라’ 는 주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내 가족과 내 자녀들도 무너집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복음은 단절되고 맙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한 세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게 회생하십시오. 우리들 세대에 보여주어야 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 세대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삶을 살아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위에 세워졌으며, 공동체 안에서 회생한 분들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요 21:19), 목자장자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정성국 목사(아시아연합신학대학 신약학 교수)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이강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차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이동만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0: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6(사순절 3)...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146.....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12: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약속 권용평 목사
* 찬 송 Hymn	440(49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6:1-2 인 도 자
찬 송	600(242) 다 함 께
기 도	김혜언 집사
성 경	엡 4:4-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교회의 속성 “ 설 교 자
* 찬 송	208(246)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허 숙 권사
성 경	왕하 19:14-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련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헨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21:17)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minster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스테반 총회 및 3월 월례회 / 19일(주) 오후3시30분 101호

◆ 알 림

1. 1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예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량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3. 702호 예배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4.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5. 교회학교에서 섬기실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례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6. 은빛 찬양대 대원모집. (대상 우리교회 65세 이상 어르신 / 연습시간 및 장소: 매주 오후2시 502호)

* 더 이상 지체 마시고 찬양의 은혜를 함께 누리러 오세요 *

7. 2017년도 4월 첫 세례식 실시

4월 세례식이 4월 5일(수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에게서는 3월 26일까지 문답 청원서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례식 거행을 위해 4월 5일 저녁 수요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추후 다시 재 공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010-7743-322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권용평 목사 소개

계명대 교육학과졸업(B.A)

장신대 신대원졸업(M.Div.)

연신원 졸업(Th.M)

Fuller-Acts 목회학박사(D.Min.)

서울베다니교회 원로목사

서울강남노회 중경노회장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총회 서기

총회 헌법개정위원장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70명	234명	283명	1,387명	151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3/1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3월12일	전주이월	89,101,640		
"	헌 금	34,189,450		십일조 :24,025,000 주일 :4,746,300 감사 :3,972,000 교회학교 :311,650 기타 :1,134,500
"	특별예배비		1,042,000	안내위원 명찰 외
"	교회학교운영비		45,000	교역자실 프린터 임대료
"	비전2020		3,440,000	계 3보병사단 지원 외
"	출 판 비		900,000	순례자 발행 외
"	스모폼비, 사무용품비		223,130	이동형 앰프 배터리 외
"	교통통신비		1,558,780	부교역자 전화료 외
"	차량유지비		643,700	3770주유 외
"	복리후생비		314,000	병원비 외
"	수도광열비		495,000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	수선유지비		272,300	사택 보일러 수리 외
"	예수금		5,261,870	연말정산 환급액
	합 계	123,291,090	14,195,780	잔 액 \109,095,310

*2017년1/4분기전교비:120,388,320원, 농어촌교회후원금: 20,900,000원

군선교비: 19,800,000원 수입(헌금)부족으로 집행하지 못 함.

소유와 행복

소유라고는 아무 것도 없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산사람들이 있다. 주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가 그렇고 테레사와 같은 이가 바라 그런 사람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실 있는 삶을 추구했고 사명을 갖고 살았으며 봉사 위주의 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저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지녔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갖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고 섬겨 주고 깨우쳐 주는 일만 오로지 힘썼다.

한편 많은 것을 갖고도 불안한 인생을 살다간 이들도 있다. 헤롯이 그렇고 주님을 모시지 못한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물질도 권력도 다 가졌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하고 고민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과 때문이다. 작은 것을 갖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벧세다 광야의 소년처럼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주여, 인생의 성패가 그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소서!”